

“숲아래서 고립감 아닌 새로운 소통 꿈꿔”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박이수씨 남편에 북스테이 ‘숲아래집’ 오픈

다락방·스터디공간...소설·시·인문서·동화책 등 갖춰
토론하고 소설 공부하는 공간서 도심 스트레스 ‘홀홀’

‘피로사회’라는 말이 있듯이 현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쉽게 부족하다. 지나친 경쟁과 실적에 매몰된 나머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 북스테이(bookstay)는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물러오는 7월에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산과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서지향(書之香) 그윽한 편안한 공간에서 하루 이틀 묵으며 책과 함께 여유를 갖는 것도 권할 만하다.



작품집 출간 소식을 전해올 때, 또는 문학 행사장에서 마주쳤을 때는 다른 편안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말대로 집을 잘 자서인가 보였다. “예전에 이곳을 지나친 적이 있는데

당시에 1000여명의 감나무밭이 있었다”며 “보자마자 바로 필이 났었다”고 했다. 박 작가의 결정에 지인들은 “다들 미쳤다고 만류했다”는 것이다.

모두 2층으로 구성된 이곳은 게스트가 머물 수 있는 침실 세 개와 취사실, 거실, 이층 다락방, 서점, 스터디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스터디 공간에는 소설, 시집, 에세이, 인문학 서적들이 비치돼 있고 이층 다락방에는 청소년소설과 위인전, 그림책 등 아동 서적들이 구비돼 있다.

집을 짓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말에 박 작가는 잠시 혼신을 내쉬었다. 완공이 되기까지 저간의 사정이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다. “가을에 시작해 강추위가 오기 전에 끝나기로 계획했던 공사가 적잖이 늘어졌어요. ‘에타는 겨울’을 보냈는데 지난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지만 공사는 진척이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 공사가 반도 진행되기 전에 건축비를 다 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공사는 당초보다 4개월 지나 마무리됐다. “집을 짓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말리고 싶어요.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말이죠.”

모두 600평인데 권면이 200평 나머지는 모두 밭이다. 감나무와 자두나무, 대추나무도 보인다. “밭 매느라 힘들었다”는 말에



나주시 남평읍에 자리한 북스테이 ‘숲아래집’의 외관(위)과 내부 모습.

서 편안해 보이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흙을 밟고 만지고 살다보니 도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홀홀 날아가 버린 모양이다.

이곳에선 독서토론, 책 읽기, 소설 공부 등 소규모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끔씩 작가 지망생들이 모여 문학에 관한 이야기도 나눈다. “사람들이 모여면 따뜻한 차도 마시고 아주 간혹 마걸리도 마신다”며 “향후에는 시골 어르신들,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는 계획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외지에서 아이들이 동반한 이들이 프약하게나마 찾아오고 있다. 거실에 게스트와 피드백 할 미니침판을 두었는데 돌아갈 때 잘 쉬고 간다는 메모를 보고 나면 뿌듯해진다.

박 작가는 마흔이 넘어 소설 공부를 시작했다. 잠재돼 있던 글쓰기에 대한 충동이 불일 듯 일었다고 한다. “한때의 정신적 역마로 한적한 바닷가 허름한 집에 자신을 윤택했던 시간도 있었다”는 말에서 작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는 지난 6년여에 걸쳐 써왔던 경쟁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 여자의 ‘운명’에’를 다룬 소설로 노래방 도우미로 사는 미혼모의 삶을 소재로 한 작품이지요. 무엇보다 이곳 ‘숲아래집’에서 글도 쓰고 자유를 누리며 사람들과의 새로운 소통을 할 참입니다.”

문의 010-9153-7855.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키낭** 7월호

나에게 여행은 □□이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産婆).” 프랑스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에서 여행을 이렇게 정의한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생각과 내적인 사유가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여행은 □□이다’라는 명제에 여행자마다 다양하게 빈칸을 채울 것이다.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월간 문화예술잡지 ‘여행’ 7월호는 ‘올 여름 당신의 여행은?’을 특집으로 다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수는 2649만 6400여명으로 총인구(5145만명) 대비 50%를 웃돈다. 해외여행이 기존 성수기인 7월·8월(7월말·8월초)을 벗어나 일상화되고, 판에 박힌 패키지 여행대신 ‘나만의 여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한 도시 한달살기와 소도시 여행, 도서관 여행, 클래식 연주 여행을 다녀온 여행자를 소개한다.

‘여행 초대석’은 ‘나무심는 출판인’ 조상호 전남출판·나무수목원 회장의 출판 외길 인생과 나무 이야기를 들어봤다. 유신말기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우회어로 ‘출판 저널리즘’을 선택한 그는 40년 가까이 언론학과 사회과학, 문학 관련 3600여권의 책을 만들며 ‘사상의 저수지’를 형성했다. 또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산자락에 ‘우공이산’(愚公移山)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어 ‘생명의 숲’을 만들고 있다.

‘문화계 핫피플 코너’는 서양화가 최영훈과 조각가 손연자 부부의 예술세계를 살펴봤다. 1965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만난 이후 50여년이 넘는 세월을 부부로, 예술적 동지로 살아온 두 사람은 최근 ‘동행’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 작업실 ‘흔적원’(燕石苑)에서 마주하는 꽃과 나무를 화려한 색채로 화폭에 담은 최 화백과 다양한 인물 군상 작업을 통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손 작가의 작품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신(新)남도택리지는 ‘감성여행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진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가우도 집트랙과 마량 놀토수산시장, 오감통, 다산밥상 등 강진의 멋과 흥, 맛은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끈다.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분석했다. 또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시리즈는 ‘하나의 서점, 한 권의 책’이란 컨셉으로 1주일에 책 한 권만 판매하는 일본 도쿄 모리오카 서점을 직접 다녀왔다.

이 밖에도 남북분단 문제에 천착하는 영화감독 박찬욱·현대미술가 박찬경 형제를 비롯해 황금사자기 우승을 일군 광주일고 야구부 김창평 투수, 광주 시립극단 나상만 예술감독 등 많은 읽을거리를 마련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김공근 작 '시선의 부재'

소수자의 시선으로 ‘마이내리티’ 기획전 12일까지 은암미술관

‘예술로 바라본 소수자의 시선.’ ‘마이내리티’(minority)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소수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말한다. 이중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 종교적, 사회적 특징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보다 기준이 낮아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자들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

에서 사회적 약자는 사전적 의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다양한 형태로 차별을 받는 다. 한국마이내리티학회와 광주미술인협동조합, 은암미술관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시선을 다룬 전시 ‘마이내리티’(12일까지)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개막일인 30일에는 ‘마이내리티’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열어 이론과 전시가 융합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마이내리티’ 기획융합전에는 광주 미술인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일을 비롯해 김나영·김다인·김미지·김선미·김용근·김원경·박주희·박진아·변대선·서다민·유선진·윤준성·이경옥·이동주·이태희·정다와 정해영·조성숙·주라영·최연택 등 20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문의 062-231-529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광주이야기’ 당선자 시상식 열어

아시아문화원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공연 스토리 공모 ‘광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선자 17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ACC 레퍼토리 공연 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391건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10명을 선정했다. 대상작(상금 300만원)에는 신인 출신 독립운동가 서태석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정경진씨의 ‘미국에서 온 편지’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80년 5월의 이야기를 그린 조홍준씨의 ‘수박등 아이들’과 옛 전남도청의 1930년대 설계자와 문화전당 건축가의 만남을 이야기 한 송재영씨의 ‘시간을 짓는 건축사’가 각각 차지했다. 문화원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가능성 있는 작품들을 선별, 단계적으로 공연 제작을 추진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음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